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에 7:1-10)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이라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잠잠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르드개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의 궁금증을 충만하게 증폭시켜,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줄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거침없는 요청을 합니다(3절).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게다가 왕은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는 오해까지 합니다.(8절)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해야 하는 때, 곧 하나님의 때를 잘 인식하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왕에게 고발하였을 때 하만의 주변에서는 한 사람도 그를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하만 장군이 에스더 왕후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들을 말살 시키려는 계획은 약 5년에 걸쳐 준비한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만이 왜 그토록 악한 일을 하게 버려두시는지에 대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을 역전 시키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만든 사형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려 죽은 것입니다(10절).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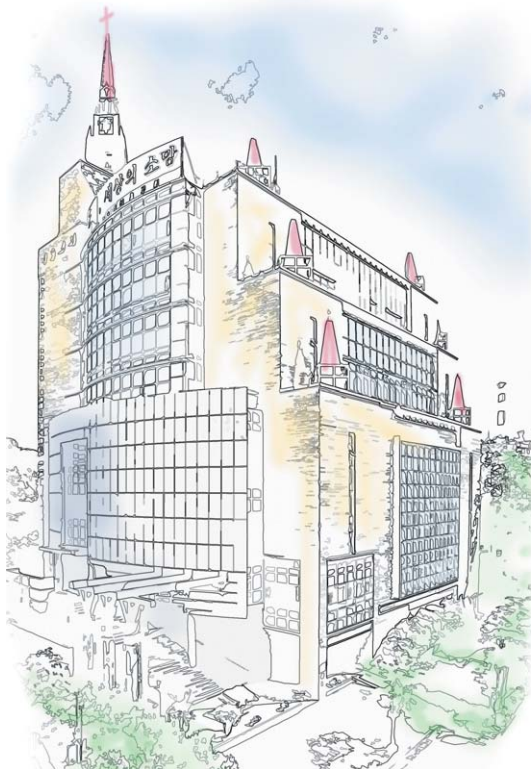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길이 잔잔한 시냇가이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s Greatest Reversed Drama

(Esth. 7:1-10)

We sometimes think that God may not know where we are now. But He never makes a mistake. He never dozes nor sleeps for a second. He created all things in the world. Even now, just as he operates his creation, he accurately operates all the events of our life due to His time table.

Though He seems to be calm when we see Him, he is working. Mordecai became a most trustful liege. The King's was full of Esther's love of which he was ready to do whatever she wanted.

Esther freely requested to the King, "Spare my people" (v. 3). And she reported to the King that Haman destroy her own people. And then King misunderstood that Haman was trying to rape the queen (v. 8). Queen Esther realized the time when she requested to the King and the time when God works well.

When Esther reported to the King, not even a person around Haman made excuse for him. There was no one who said, "Oh, King! Gen. Haman appealed mercy to Queen Esther." But they snitched on Haman who had the gallows built to have Mordecai hanged o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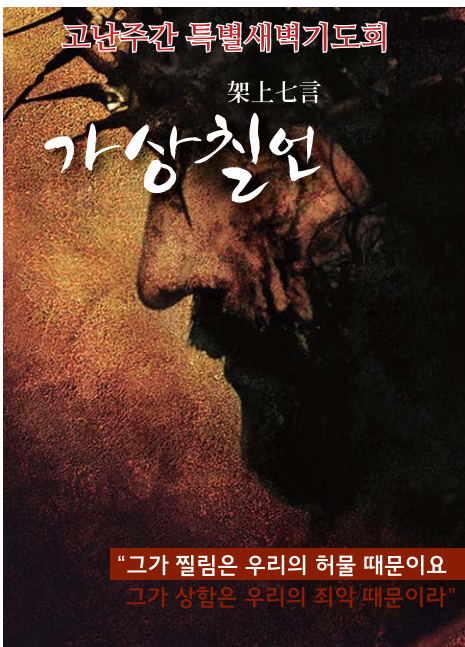
It took five years for Haman to plan and prepare to annihilate Mordecai and Jewish people. Mordecai and Esther suffered very much from the reason why God made Haman done the evil things. However, finally, our God reversed all of the things overnight. Haman was hanged on the gallows that were for Mordecai hang. (v. 10)

Please see Joseph's life, David's life, Job's life. Please, especially, see the incident of Jesus Christ's on the cross. Our God is the reversed Lord.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walking on the path of a pilgrim. We are living our life without knowing what will happen tomorrow. However, because our Lord Jesus Christ is holding our hand, we have nothing to be afraid of.

Although it is a calm stream, a green field, or even a valley of shadow of death, if there are God's hand and His guidance, we are able to enjoy the greatest reversed victory.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5(월)~30(토) 오전5~6시, 강사: 박노철 목사
성 금요일 (3월29일) 금요기도회: 연합다락방, 오후 8:00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가상칠언(架七上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한다. 또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성 금요일(3월29일)에 해있는 동안 금식하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도록 하며 부활주일에 드리는 금식헌금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예배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본당에 모여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 순결 서약식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부장: 양준경 장모)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13년 순결서약식이 거행 된다.

2013 교회 요람 발간

- 각 세대 당 한권 씩 제공 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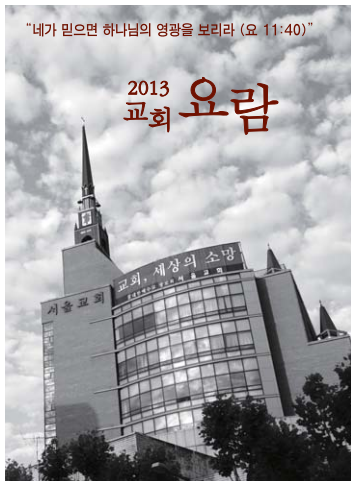
2007년도 이후 그동안 발행되지 않았던 교회요람이 올해 다시 발간된다.

이번 2013교회요람에는 올해 시행되는 연간사업계획, 교역자를 비롯한 향존직, 임시직 직분자 및 각 부서 섬김위원 명단은 물론 2007년 섬김위원 중심으로만 발간된 요람과는 달리 교회전체 장년성도 명단(3월10일 정식등록교인자격 취득성도까지 포함)과 그 가족관계가 각 교구 및 다락방 별로 정리되어 포함된 것이 특색이다.

다만 사진은 편의상 현재 시무 중인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 및 교회직원들과 서울교회 향존직 은퇴자(살림권사회원이 되는 은퇴협동권사 포함)들까지 포함되었고 또 숫자가 많은 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 등은 찾아보기 쉽도록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음을 참조바란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락방을 통하여만 배부되고 각 세대(부부) 당 한권 씩 무료로 제공된다.

수록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착오가 있는 부분은 각 해당 교구목사나 교구섬김위원(교구장, 부교구장, 간사)을 통하여 정정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락방장은 목, 금, 토 특별새벽기도회 후, 교환권 소지 성도는 31일(주)에 수령”

다락방장은 이번주 실시될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중 목,금,토요일 사이에 다락방원들에게 전달할 교회요람 또는 요람교환권을 202호에서 수령하기 바란다.

“교환권 소지 성도는 31일(부활주일) 교회에서 요람을 직접 수령하도록”

다락방장으로부터 교회요람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요람교환권만 수령한 다락방원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오는 부활주일(31일) 2층 본당 입구 코람데오 조형물 앞 또는 1층 테이프 판매실 앞에서 배포되고 다만 주중에는 사무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봄을 맞이하여 나눔의 집에서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품을 기다린다. 나눔의 집은 진행되고 있는 제4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해 지하3층에 있는 매장을 정리하며 성도님들이 그곳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1]

(문 8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 왕에 대한 법도를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 달라 했다 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같이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울 것을 섭리하셨습니다.(창 49:10) 신 17장에는 왕을 위한 제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에 와서 왕을 세우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기에 부적합자로 판명되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삼상 8:5)

사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 시대에 돌입한 이스라엘의 국운은 변동이 잦았습니다. 결국 국가적 분열과 좌절을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왕을 세우기로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왕 제도는 당시에 이웃나라 즉 이방나라의 정치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보다 이웃나라의 왕 제도를 따르면 나라가 완전해질 것으로 알고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나라 백성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좇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구별시켰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방세상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증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위한 왕제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창 17:6)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창 49:1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이므로 책망은 하셨으나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왕을 세움으로 왕의 압박으로 자유를 잃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 세움을 후회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삼상 8:11-18)

(다음주 계속)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짜는 해마다 다르다. 올해는 3월24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하고 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뜻 깊은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순절의 기도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하소서!

이은희 권사(11교구)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두손 모두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의 잔이
텅없이 부족함을 아시고
이끌어 불러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떨며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할 뿐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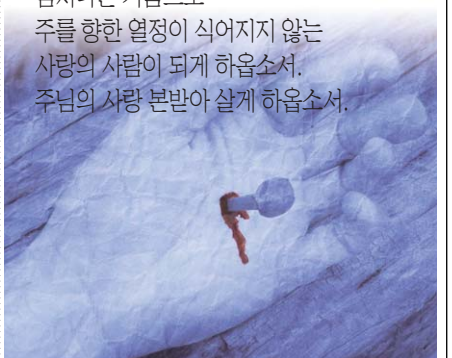
갖은 모욕과 침 뱀음과 조롱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 떠는
믿음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교묘하게 솟아오르는 교만함과
편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잡재워 주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한다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고
믿음을 온전히 유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또다시 다독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배워가게 하시고
작은 이들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와 격려, 소망과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멈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의 샘물이 되게하사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교회의 사랑을 통해



한정우 성도 (10교구)

작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서울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분들께서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해주셨을 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느낀점이 많아 교회에 다시 열심히 다니기 위해 동생과 함께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

육을 받는 8주동안에는 그 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믿음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매주 온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올 때 마다 항상 새롭고 좋은 말씀이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매주 같은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 매주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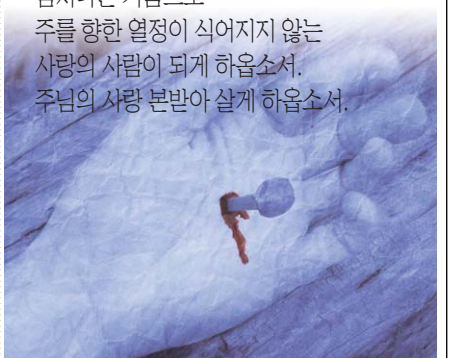
나의 하나님

우리 것이어야 세기와 동한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전광영 집사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글로벌 작가로 그의 작품은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 산하기관인 '우드로윌슨 센터'와 'UN 본부'에 전시 되어 있다. 전 집사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창작 활동, 세계 도처에서 열리는 전시회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그간 청년부 부장, 할렐루야 찬양대 부대장 등 교회의 부름에 철저히 순종하며 신앙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전광영 집사는 할머니의 신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다음은 2월 25일자 동아일보 A32면 에 실린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 그는 미술 한류를 이끌고 있는 몇 안되는 글로벌 작가다. 2006년부터 세계 10대 화랑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애널리 주다 갤러리에서 한국 작가 처음으로 대규모 회고전을 한 것을 비롯해 미국 내 5대 화랑 중 하나인 로버트 밀러 갤러리 개인전, 도쿄 모리미술관 개인전을 잇달아 열어 놀라게 했다. 지난해 미국 3대 대한 미술관 순회전을 차례로 마친 그는 새해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영국 아시아아트센터 스코틀랜드 미술관 전시를 확정했고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과 베를린 국립미술관 작품 판매도 확정됐다..... 그림 한다고 아버지와 의절하고...4년 내내 대학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벌여 졸업한 뒤 명문으로 꼽히는 필라델피아예술대 미술대학원에 진학

했다. 미국에서 보란듯이 성공해 본패를 보여 주고 싶었다. 하지만 생활은 비참했다.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하나의 생각 뿐이었다. '나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 큰할아버지가 한 약방을 했어 천장에 매달아 놓은 약봉지 이미지가 떠오른거지 재료는 한지로 하되 약봉지처럼 짜자....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50줄에 접어든 199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전시회를 시작으로 1998년 시카고 아트페어 매진, 1999년 뉴욕 첼시 김포스터 갤러리 초대전 매진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다....."



스데반회 수련회를 마치고

디아크노스가 되기를...



최치순 집사(4교구)

해마다 3월 초하루 날은 스테반회 수련회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말씀과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가페타운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를 때만

해도 우리의 모습은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의 헐벗은 한 그루 나무였고,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거리를 찾고, 온전한 헌신은 외면한 채 마른 자리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담임목사님이 강해하실 때 우리 스테반회 회원 한명 한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습관, 자아, 교만함의 걸 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진정 자유함의 감격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를 가드 광야에서 회복의 아들람 굴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무



엇보다 인생살이의 모든 나침반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가리킬 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 더 오래, 더 깊이 주목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헌신 할 수 있는 디아크노스(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서울교회를 위해 우리 각 자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어린이 찬양예배

어른들은 찬양 예배로! 아이들은 어찬으로!



오윤결 집사 (어린이찬양예배 부장)

701호는 어린이 찬양예배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모여드는 어린이들로 인해 점점 시끌벅적해 집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구별 없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고 뛰어놀던 아이들은 지난주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고 구슬을 뽑아 편을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준비 합니다. 어린이 찬양 예배는 '와우큐 키즈'라는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최민혁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은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예배'를 목표로 삼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엔젤스와 글로리아 울동팀, 어린이 핸드벨 연습을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한 친구들이 피곤해 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습니다.

신나는 울동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시작되는 예배는 매번 다른 분장을 하고 나타나 설교에 관한 문제를 내는 'Q맨'이 있어 즐겁고 '말기찬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전도사님을 이길 수 있

어서 신이 납니다. 말씀을 노래로 배우는 '말씀 챌트'를 가장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외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결과를 순수히 받아들이는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답니다.

출석을 하고, 문제를 맞히고, 게임에 이겨서 받는 달란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눌 수 있는 '달란트 시장'은 어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기도 하지요. 주일 저녁, 아이들 때문에 찬양 예배드리는 것을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마세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 찬양 예배로 자녀들을 보내 주세요.

· ps : 매월 4째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 아시죠?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성복교회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한다. 3월26일(화) 서울장신대 체플설교를 한다.
- 득녀 : 11교구 김국진성도 · 박정현 성도 가정
16교구 주민호성도 · 오재영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뱀뱀전도회(3.24) 마리아전도회(3.31)
- 금주의 식사 : 김병용 집사 김성은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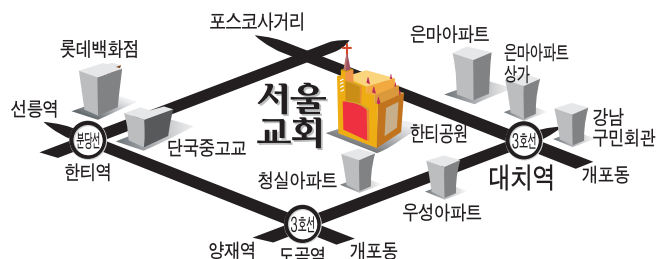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2. 순결서약식을 통해 방방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우리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새 벽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